

#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 경과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 한옥공모전 기획 배경과 목적

2011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다.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는 공모전은 ‘한옥 준공’, ‘한옥 사진’, ‘한옥 계획’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한옥공모전의 주제를 살펴보면 2011년 ‘NEO-Hanok Vision: 진화하는 한옥’을 시작으로 2012년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 2013년 ‘한옥의 가능성’, 2014년 ‘누구나 누리는 한옥’, 2015년 ‘상상 그 이상의 한옥, 한옥은 ( )이다’, 2016년 ‘도심 속 한옥’, 2017년 ‘한옥의 현대화(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1~2인 가구 대상 집합주거)’까지 새로운 한옥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왔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주제와 작품 접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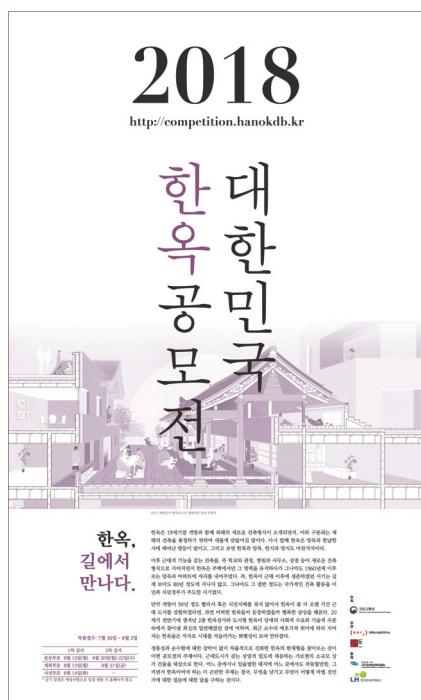
연도	공모 주제	준공 부문	계획 부문	사진 부문
2011	(계획) Neo-Hanok Vision: 진화하는 한옥	18	152	-
2012	(계획) 함께사는 한옥(공동주택) (사진) 한옥의 일상	6	104	316
2013	(계획) 한옥의 가능성 (사진) 한옥의 가능성	9	129	488
2014	(계획) 누구나 누리는 한옥 (사진) 자유주제	4	68	790
2015	(계획) 상상 그 이상의 한옥 (사진) 자유주제	10	57	506
2016	(계획) 도심 속 한옥 (사진) 자유주제	9	53	692
2017	(계획) 한옥의 현대화(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1~2인 가구 대상 집합주거) (사진) 자유주제	17	53	595

## 한옥공모전 진행 과정

2018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심사위원회는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분야의 학계 및 건축사, 사진부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출품작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한 해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주요 방향을 설정한다.

올해의 주제는 ‘한옥, 길에서 만나다’가 제시되었다. 그동안 제시된 한옥의 다양한 가능성과 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고, 참가자들에게 정통성과 순수함에 대한 강박이 없이 자율적으로 진화한 한옥의 현대형을 찾아볼 것을 요청한 것이다.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공모는 2018년 6월 11일 공고되어, 참가 등록과 작품 접수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심사는 8월 한 달간 사진, 준공, 계획 각 부문별로 진행되었다.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포스터

사진 부문의 경우 하나의 주제를 세 장의 사진으로 구성한 연작을 1인당 1개 작품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일반인 부문 157개 작품(연작, 총 471장, 157명), 청소년 부문 36개 작품(13명) 총 193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건축사진 분야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경 작가(프리랜서), 윤준환 작가(한국건축사진가회 회장)와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운영·심사위원장)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최종 수상작 33개 작품(일반 22개 작품, 청소년 11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준공 부문에서는 12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3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계획 부문은 28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 대상작 15개 작품을 선정한 후 모형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전봉희 교수, 김석준 소장(아름더건축사사무소), 전보림 소장(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2017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이경석 건축문화관과장(국토교통부),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 건축, 건축과 조경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준공 부문과 계획 부문의 심사는 디자인 및 시공 품질 등 한옥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와 함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에 대한 창조적 시각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한옥문화박람회’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회를 가진다. 계획 부문 수상작 8점, 준공 부문 수상작 3점, 사진 부문 수상작 33개 작품 모두 43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 수상작 소개

준공 부문의 최고상인 2018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된 수원시 '장안사랑채(김미진, 이소건축사사무소)'는 도심내 가로변에 면한 공공공간 겸 임대 상업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제와 부합하고, 작품의 완성도도 높은 한옥이다. 가장 단순한 가로로 긴 일자형의 한옥을 높이에서 변화를 주고 폭을 달리하면서 공간에 변화를 주었다. 또 이전에 있던 옛길의 흔적을 살려 진입부를 만들고 주변의 한옥체험관, 한옥기술전시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춰 구성한 점이 우수하였다. 올해의 한옥상 두 작품은 서울 은평 한옥마을에 지어진 생활 한옥인 '함경루'와 종로구의 체험한옥인 '상촌재'가 선정되었다. 함경루는工자형 평면을 활용하여 기능 측면과 조형 측면 모두에서 현대 생활에 적합한 한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좁은 땅에 다양한 마당을 만들어 낸 점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촌재는 기존 한옥의 일부를 보존하면서 도시 한옥을 재해석하여, 중축 부분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옥의 구성요소인 온돌·마루·부엌·마당을 선보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성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계획 부문의 대상작으로는 도심부 가로변에 자리한 소규모 필지에 5층 규모의 단일 매스로 구성한 '적층한옥(우종성)'이 선정되었다. 적층한옥은 높이



사진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옥 속의 풍경'

차를 이용해 저층부에 구성한 임대 공간과 상층부에 3층으로 쌓은 게스트하우스용 한옥 부분의 연결이 우수한 작품이다.

사진 부문 대상은 올해도 일반부에서 수상하였는데, 현충사에서 촬영한 '한옥 속의 풍경(이광수)'이 선정되었다.

준공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33개 총 54개의 수상작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공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장안사랑채'  
계획 부문 대상 수상작 '적층한옥'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hanokdb.kr/main/competition/index.do>